

#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김 정 현(Jeong-Hyen Kim)\*

문 지 현(Ji-Hyun Moon)\*\*

### < 목 차 >

- |                         |                           |
|-------------------------|---------------------------|
| I. 서 론                  | 2.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어린이도서관의 특성             |
| 2. 연구방법 및 범위            | III.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 분석 |
| 3. 선행연구                 | 1.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         |
| II.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및 어린이 | 2.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분석         |
| 도서관의 특성                 | 3.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개발을 위한 제언  |
| 1. 어린이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 IV. 결 론                   |

### 초 록

이 연구는 최근 어린이독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린이도서관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태분석은 물론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표준분류표가 제정되지 않아 도서관 실무자들과 이용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여,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 시에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과 요건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실태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분석한 후, 공립·인포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사립어린이도서관으로 대별하여 분류체계 사용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인 느티나무도서관 분류표와 파랑새도서관 분류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한국십진분류법

###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basic principals and requirements for future development of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Until now there is no standardized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thereby librarians as well as library users have to go through many troubles.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d current conditions of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and analyze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books. This study reviewed children's book classification systems and how these systems are being used in three different library systems: public and Inpyo Children's Library, Miracle Library, and private children's librarie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research on two notable children's book classification systems of Neutinamu Children's Library and Parangsae Children's Library. This study suggests basic principals and requirements for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based on researches described above.

Key Words: Children's Library, Children's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 KDC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gim@chonnam.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lacodnjs@hanmail.net) (공동저자)

• 접수일: 2007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어린이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겁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출판계에 서도 아동 문학도서나 어린이와 관련된 아동도서의 출판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3년 한 방송사에서 기획·방영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불과 1-2년 사이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이 무려 9개관이나 건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거니와,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어린이도서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2006년 6월에는 어린이도서관 정책수립, 아동독서진흥 정책수립, 아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협력 등을 목표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어린이도서관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도서관 가운데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어린 시절부터 도서관 이용을 자연스럽게 생활화시켜주는 공간으로,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및 학습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도서관이 나름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가높이나 열람실 배치에서부터 장서구성이나 이용안내,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물리적인 공간과 서비스가 모두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도서관의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립적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어린이 책이 단지 크기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해서 별치기호를 달아 규격이 다른 서가에 따로 모아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 책의 내용과 형태, 편집, 이용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꼼꼼하게 선별한 책들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잘 분류하여 꽂아놓으면 그 자체만으로 책에 관한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다. 1)

하지만, 현재 어린이도서관에서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용 표준분류체계가 없어 도서관 실무자들은 물론 이용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이나 학교도서관,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많은 어린이도서관 전문가들이나 운영자들은 KDC로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도서관의 현실을 생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과 분류표를 분석함으로써 장차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분류표를 개발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 박영숙, 어린이책 분류법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며, 2005, <<http://www.neutnamu.org>> [인용 2007. 5. 7].

##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과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분석한 후, 기존의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 중 KDC와 KDC 수정전개표를 제외한 자체 개발된 분류표 중 대표적인 2가지 분류표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시에 기본원칙과 요건이 될 수 있는 기본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헌을 통해 어린이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을 살펴보고, 현재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어린이도서관의 종류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현실적인 분류체계가 학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류가 아닌 실제적인 도서를 대상으로 한 문헌분류이기 때문에 분류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출판현황 및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체계를 분석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을 개괄하고, 대표적인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인 느티나무도서관 분류표와 파랑새도서관 분류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사용현황은 인터넷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사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인터넷상으로 확인 가능한 16개관만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넷째, 앞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건을 제안하였다. 먼저 KDC를 이용하여 어린이자료를 분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점과 한계를 분석한 후, 향후 전용 분류표 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의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도서관이 발달한 외국 어린이도서관의 분류적용 사례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그것은 이 연구가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실태와 분류표 사용현황 그리고 몇 개의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의 특성 분석을 통해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개발을 위한 기본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과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시에는 개발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외국 어린이도서관의 분류사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선행연구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존의 이루어졌던 연구의 성과를 파악해 봄으로써 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및 기준 등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그리고 어린이 자료의 분류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영주<sup>2)</sup>는 어린이도서관 16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장서, 사람,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어린

이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운영을 살펴보고, 어린이도서관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보다 많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통한 공간 확충, 어린이 발달단계에 맞는 어린이 장서 및 전문 인력의 확보, 어린이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 어린이도서관의 표준화 모델의 개발 등 어린이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연옥<sup>3)</sup>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과 그 성과가 단지 일회성이 아닌 우리나라의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어린이도서관운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어린이도서관운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여, 각각의 운동이 갖는 내용적 특성, 성과 및 의의, 한계 등을 짚어보고, 그 결과들을 종합하여 이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발전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지현<sup>4)</sup>은 어린이도서관 4곳의 운영현황을 분석,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공공도서관 어린이실과 학교도서관의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어린이도서관의 건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어린이 자료의 분류에 관한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적인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이나 인터넷 서점의 아동도서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윤효정<sup>5)</sup>은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 6곳의 아동도서의 분류체계 현황과 자관 분류체계를 제시한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분류법을 분석한 뒤, KDC의 분류체계와 상호 비교하여 인터넷 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아동도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운선<sup>6)</sup>은 학교도서관에서 자료정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현재 학교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 이용실태에 관해서 사서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에 적합한 KDC 간략판 개발의 원칙을 제안하고, 표준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 300 사회과학, 400 순수과학, 800 문학 분류표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김정현<sup>7)</sup>은 초등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제로 소장된 문헌의 KDC 유별 현황을 분석하여 문헌의 유별 분포도를 분석하고, KDC 사회과학류(300)와 순수과학류(400)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분류항목과 초등학생관련 문헌에서 추출한 용어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해도를 분석한

2) 이영주, 어린이도서관의 현황과 발전방안(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4).

3) 이연옥, "현단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1호(2005. 3), pp.309-327.

4) 주지현, 어린이도서관 기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5) 윤효정, 인터넷 서점의 아동도서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6) 이운선,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간략판 개발(300, 400, 800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7) 김정현, "학교도서관을 위한 KDC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관련 문헌의 어휘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2), pp.171-191.

후, 이를 바탕으로 분류표 수정전개의 원칙과 방법을 마련하여 분류항목의 수정전개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경록과 성승경<sup>8)</sup>은 KDC가 어린이자료와 아동문학 장르에 대한 분류항목이 제대로 전개되어 있지 않아 일관되고 통일된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고,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분류항목의 일부 수정 및 보완방안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경우 DDC와 LCC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학교도서관이나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대부분 DDC 간략판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제14판까지 발간된 DDC 간략판은 DDC 완전판의 분류기호를 생략하거나 바꾸기도 하지만 분류기호를 축소시켜 20,000책 이하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관에서 사용이 간편하도록 만들었다.<sup>9)</sup>

일본의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는 NDC이며, DDC와 같은 간략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본표의 해설에서 장서량에 따라 요목표(3숫자)와 세목표(4숫자 이상)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도서관에서는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강목표(2숫자)도 무방하다고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요목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sup>10)</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나 학교도서관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수 있지만 어린이도서관의 분류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개발을 전제로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분석하고 향후 분류표 개발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및 어린이도서관의 특성

### 1. 어린이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우리가 어린이라고 할 때 그 범위는 신생아에서부터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의 어린이를 뜻한다. 어린이는 시기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구분하는데, 영아기는 출생에서 1세경까지, 유아기는 2세경부터 5세경까지, 아동기는 6세경부터 12세경까지의 초등학교시기이다.<sup>11)</sup> 이 기간의 어린이는 국가의 중요한 후속세대로서 급격한 신체발달과 함께 사회성이 형성되고 자의식이 싹트는 대

8) 민경록, 성승경, “어린이 자료 분류를 위한 KDC의 수정 및 보완: 문학류(800)를 중심으로,”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제43회(2005), pp.62-89.

9) Melvil Dewey, *Abridg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 14(New York : Forest Press, 2004), p.xi.

10)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5), p.xxxii.

11) 한국유아교육학회 편, 유아교육사전(서울: 한국사전연구소, 1997), p.349.

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을 정의내리자면, “전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봉사를 위해 설립된 도서관”이다.<sup>12)</sup> 즉, 어린이가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주제와 형태의 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여 바람직한 어린이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교육적·문화적·사회적 봉사기관으로<sup>13)</sup>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상상력을 배양시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곳이다. 특히 유년기부터 독서습관과 도서관 이용습관을 형성시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도서관을 평생 이용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IFLA가 「어린이도서관 지침」에서 밝힌 어린이도서관의 일반적 목적을 살펴보면,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sup>14)</sup>

- ① 어린이가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어린이가 될 수 있는 문화적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 ② 어린이가 인류역사에 기초한 韻文, 그림, 소리 및 전자자료 형태의 문화유산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가 자신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도록 자극해야 한다.
- ③ 어린이가 적극적, 창조적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인류의 보통 기억으로 활용하는 자료와 미래 어린이 세계에서 사용할 자료의 보존이 그 업무이다.
- ⑤ 어린이의 문화 선호의식의 발생과 휴식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봉사한다.
- ⑥ 어린이도서관은 적절한 상황이 설정되면 국가의 전체적 도서관 제도에 부분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 ⑦ 물질적 공간을 편안하게 하고 현재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어린이 개인 능력을 계발하고 다른 활동을 격려하면서 독서하는 즐거운 장소가 되어야 한다.
- ⑧ 부모와 교육자에게 자문하면서 현 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그 역할을 함께 관리한다.

즉,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적극적·창조적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기관이다.

12)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228.

13) 이영주, 전개논문, p.19.

14) A. M. Fasick ed.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25. Guidelines for Children's Service* (Haygue: IFLA, 1991), pp.5-7.

## 2.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5월 4일 세계어린이해를 기념하여 설립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며, 최초의 사립어린이도서관은 1980년 잠실 시영아파트 채규철씨 집에 마련한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90년대부터 민간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콰이어 재단의 인표어린이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은 1990년 상계동에 제1호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현재 국내 14개관과 중국, 카자흐스탄 등 국외에 8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사립문고를 포함한 공립어린이도서관, 민간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까지 개관하여 실로 어린이도서관 분야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서운동 시민단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한 방송사의 협력으로 진행된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sup>15)</sup>'과 현재 진행 중인 '희망의 작은도서관만들기사업<sup>16)</sup>'도 규모와 운영면에서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도서관에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의 공간확보와 원활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마다 작은도서관만들기'운동,<sup>17)</sup>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과 '감리교어린이도서관협의회' 등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운동이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표 1>과 같다. 일부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유형을 공공어린이도서관(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포함), 민간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어린이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하는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출간된 한국도서관연감의 도서관 통계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어린이와 도서관', '인표어린이도서관', '감리교어린이도서관협의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도서관목록을 참고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작은도서관사업과 희망도서관사업에서 선정된 도서관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나, 어린이란 용어가 도서관명에 포함되어

15)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경향신문사와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공동으로 펼친 사업으로, 1차 콘텐츠지원사업에 56개관과 2차 시설개조와 개선 및 장비지원사업에 23개관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16) '희망의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은 삼섬, 한겨레신문사 그리고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1차로 농산어촌 초등학교 도서관 58곳과 2차로 민간운영 작은도서관 76곳이 선정되어 지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7) 2001년에 출범한 민관협력조직인 '푸른부천 만들기 21 실천협의회'에서 23번째 의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도서관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도서관만들기네트워크'를 결성하고, 2001년 7월부터 부천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총9개의 공립문고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있지 않지만 인터넷상의 검색을 통해 어린이도서관으로 확인된 도서관들을 통계에 포함시켰다. 한편, 인표어린이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sup>18)</sup>은 각각 사립과 공립의 성격을 갖으나, 편의상 별도로 구별하였다.

〈표 1〉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지역	관종	공립어린이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인표어린이도서관	사립어린이도서관 (사립문고 포함)	합계
서울		5		4	32	41
경기		12	1	1	53	67
강원				1	4	5
충청		1	3	2	7	13
전라			1	3	5	9
경상		2	2	3	18	25
제주			2		1	3
합계		20	9	14	120	163

〈표 1〉의 공립어린이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의 수가 말해주듯,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의 특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도서관보다는 개인이나 교회 및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운영되는 사립도서관(사립문고)들이 더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보니, 없어지거나 매년 새로 생기는 곳도 많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대략 120여개 정도로 확인되었다. 현황적인 면에서 살펴본 어린이도서관의 또 다른 특징은 공립,<sup>19)</sup> 사립도서관 모두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어린이도서관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에 기인하며, 문화적, 교육적 중심지로서의 지역적 특색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한편, 어린이도서관의 종별, 지역별 편중현상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의 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 2002년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된 어린이도서관의 수는 60여개 정도였으며, 2005년의 한 연구<sup>20)</sup>에서는 대략 100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연구자들마다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포함시키는 유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과 2-3년 마다 약 40-60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새롭게 개관·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열의와 관심이 지속될 것을 고려한다면 어린이도서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점

18)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진행시에 확정된 12곳 중, 전남순천, 충북제천, 제주, 제주서귀포, 충북청주, 울산북구, 인천부평, 경남진해, 충남금산 등 9곳이 개관되었으며, 나머지 3곳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다.

19) 공립어린이도서관은 서울의 사직, 노원, 구로꿈나무, 서초, 대조동 꿈나무 등 5개관, 경기지역의 연수, 청개구리, 동두천꿈나무, 용인, 지혜샘, 슬기샘, 바른샘, 지산초록, 부천책마루, 시흥대야, 포천영중꿈나무, 양주시립꿈나무 등 12개관, 경상지역의 달서, 재송 2개관과 충청지역의 아산 1개관이 현재 운영중이다.

20) 전영순, "어린이도서관의 현황과 과제," 어린이도서관의 법적 지위 확보와 발전을 위한 토론회(서울: 천영세 의원실, 2005),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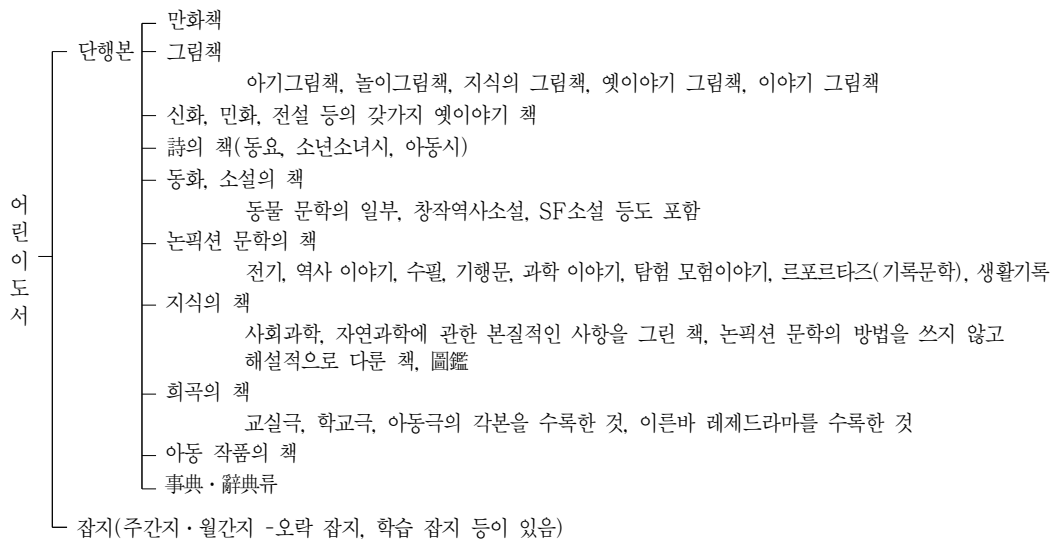
에서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 3. 어린이도서관의 특성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향하는 분류체계가 학문분류가 아닌 문헌분류 즉, 도서분류이기 때문에 분류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출판현황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분류체계를 구상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 함은 유아로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고 공급되는 책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도서이외에도 신문 및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 비디오, 슬라이드 등의 비도서자료가 모두 포함되며, 그런 점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자료를 나타내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도서관의 종류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 단계에 따라 그림책, 그림 이야기책, 동화, 소년소녀용의 읽을거리 등으로 분류되며, 연령별로는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년용, 고학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또 내용상으로는 아동 문학, 그림책 이외에 전기, 역사·과학 등의 교양서, 만화 등의 오락서, 사전·도감 등의 참고서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21)</sup> 이들 종류를 보다 상세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민병덕의 어린이도서관 장르 구분

21) 민병덕, 출판학개론(서울: 지식산업사, 1989), p.43.

최근 어린이 문학을 비롯하여 어린이도서의 출판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린이 도서의 출판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1984년에는 발행부수 1위, 1986년에는 발행종수에서도 1위를 기록한 이래 학습참고서를 제외하고는 출판에 있어서의 양적성장을 주도하여 해마다 발행부수와 종수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sup>22)</sup> 2006년 통계에서도 총 6,700종의 21,103,181부수가 출판되어 발행종수, 발행부수, 그리고 출판시장 규모면에서 모두 문학분야 다음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sup>23)</sup>

특히, 어린이도서는 어린이 문학, 그림책, 만화책 등이 다른 형태의 책에 비해 많이 출판되는 특성을 갖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 중심의 문학류가 전체 아동도서 출판량이나 도서관 장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문학류의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성인자료의 경우에도 다른 주제분야에 비하여 문학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 도서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학작품 위주로 독서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어렵고 딱딱한 지식적인 내용을 동화형식으로 풀어 쓴 과학동화, 철학동화, 경제동화 등이 소비자들의 기호와 어울려 그 출판이 점점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문학적 요소와 예술적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책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책은 단순히 그림이 들어있는 책이라기보다 문학과 미술이 함께 하는 어린이 책으로, 아름다운 그림과 이야기가 결합하여 지적 호기심의 충족과 상상력의 발달을 돕기도 한다. 그림책의 종류<sup>24)</sup>는 크게 '그림이야기책'과 '그림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림책'은 글 없이 그림만 있거나 그림 밑에 그림의 이름 정도만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책을 말한다. 반면 '그림이야기책'은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그림과 함께 간단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글이 중심이 되고 삽화가 중간 중간에 삽입된 책과는 구분된다.

셋째, 어린이에게 교양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서 만화라는 장르가 아동도서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한때 만화책은 폭력성, 오락성, 선정성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 학습만화, 교양만화 등은 책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딱딱한 주제나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이 어린이도서는 문학류의 편중현상은 물론, 과학동화, 경제동화와 같이 문학형식을 통해 지식적인 내용을 담은 도서들이 많아 지식책과 문학책으로 정확한 범주를 나누기가 어려우며 그림책이나 만화와 같이 형식과 소재가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22) 한운옥, *어린이 정보자료와 활용*(서울: 아세아문화사, 1997), pp.45-46.

23) 대한출판문화협회, 2005년 분야별 출판시장 규모: 추정액, <<http://www.kpa21.or.kr>> [인용 2007. 5. 7].

24) John Warren Stewig, *Children and Literature*, 2nd ed.(Boston: Houghton Mifflin, 1988), [현은자 외, *그림책의 그림일기*(서울: 마루별, 2004), p.14에서 재인용].

### Ⅲ. 국내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 분석

#### 1.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현황

현재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를 분류, 배가하는데 사용되는 분류방법은 그 형태가 여러 가지이다. 먼저 대부분의 공립어린이도서관과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는 KDC를 사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KDC가 대다수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는 물론,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도 사용되는 국내 유일의 명실상부한 표준분류표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게다가 KDC를 적용하여 자료를 정리하면 분담목록을 통해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경감할 수도 있으며, 아동도서 종합목록구축 및 활용도 보다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 메인홈페이지와 12개의 개별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인표도서관의 경우에도 KDC로 도서를 분류, 정리함으로써 장서의 통합관리와 자료검색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006년에 개관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경우에도 KDC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표를 간략화하고 일부 항목을 수정 전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표 2>와 같이 KDC를 적용한 도서관이 3개관, 파랑새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4개관, 그리고 자관 분류표를 만들어 자료를 정리하는 도서관이 2개관으로 나타났다. 순천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한 4개관에서 적용되고 있는 파랑새 분류법은 서울시에 위치한 파랑새어린이도서관에서 만들어 기적의 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 등에서 사용되는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체계이다. 자관 분류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제천과 울산북구의 경우, KDC와 파랑새 분류법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인 느티나무 분류법 등을 참고로 자관의 상황에 맞는 분류표를 자체적으로 개발·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기적의 도서관 분류체계

도서관명	위 치	분류표	개관일
부평기적의 도서관	인천시 부평구	KDC	2006. 3. 10.
제천기적의 도서관	충청북도 제천시	자관	2003. 12. 15.
청주기적의 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KDC	2004. 7. 15.
금산기적의 도서관	충청남도 금산군	KDC	2005. 5. 5.
순천기적의 도서관	전라남도 순천시	파랑새 분류법	2003. 11. 10.
제주기적의 도서관	제주도 제주시	파랑새 분류법	2004. 5. 5.
서귀포기적의 도서관	제주도 서귀포시	파랑새 분류법	2004. 5. 5.
울산북구기적의 도서관	경상남도 북구	자관	2004. 7. 28.
진해기적의 도서관	경상남도 진해시	파랑새 분류법	2004. 2. 2.

마지막으로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분류체계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위의 국립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인표어린이도서관 및 기적의 도서관 등은 각각 나름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국가 및 기업체의 체계적인 계획 및 지원하에 건립·운영되고 있으며 개별홈페이지의 운영은 물론,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해 웹상으로도 도서관 자료 및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립어린이도서관의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 10-50여명의 작은 규모에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개별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놓은 도서관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소수의 도서관만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간단한 도서관 소개와 프로그램운영 등을 공지하고 있으나,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인근지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작은도서관 형태의 민간어린이도서관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되는 분류법에 대한 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여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16개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관이 KDC를, 6개관이 자관 분류표를 그리고 나머지 1개관이 파랑새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대부분의 국립어린이도서관이 전적으로 KDC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분류체계가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는 KDC이외에도 파랑새분류표, 느티나무분류표와 같이 어린이와 어린이책을 중심으로 새로 개발한 분류표와 정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조사대상 도서관의 수가 적어 전체 사립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사용현황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린이도서관의 분류

<표 3> 사립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

도서관명	위 치	분류표
산돌어린이	서울시 금천구	KDC
은행나무	서울시 금천구	자관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서울시 성동구	자관
파랑새	서울시 중랑구	자관
환원	서울시 강서구	KDC
신사	서울시 은평구	KDC
달팽이	인천시 부평구	파랑새 분류표
검단	인천시 서구	KDC
모퉁이	대전시 유성구	KDC
느티나무	경기도 용인시	자관
동화기차	경기도 부천시	KDC
웃는 책	경기도 일산구	자관
반달	경기도 수원시	KDC
화홍	경기도 수원시	KDC
도란도란	경기도 부천시	KDC
맨발동무	부산시 북구	자관

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그러한 분석은 상당히 타당성을 갖는다.<sup>25)</sup> 게다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많은 어린이도서관에서 KDC 분류체계를 아동도서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각 어린이도서관의 상황에 맞는 자관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6)</sup>

## 2.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분석

앞서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과 인표도서관은 대부분 KDC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기적의 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는 KDC이외에도 파랑새 분류표와 느티나무 분류표 등 어린이도서관의 특징에 맞게 새롭게 구성된 분류표를 가져다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된 자관분류표를 사용하는 도서관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특정 어린이도서관에서 개발되었으나, 그 유용성이 인정되어 기적의 도서관 및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느티나무 분류표와 파랑새 분류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 가. 느티나무도서관 분류표

느티나무도서관 분류표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에서 개발된 어린이 전용 분류표이다. 분류법 시안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분류표는 KDC에 따라 어린이도서를 분류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KDC의 각 분야를 어린이 책에 맞게 변용한 분류 방법이다. 또한 어린이 열람실 운영자 및 예비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책 분류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위해 개발배경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느티나무 분류방식<sup>27)</sup>의 기본적인 틀은 KDC와 마찬가지로 십진체계를 따르고 있다. 십진법의 장점은 분류기호 순서대로 책을 꽂기만 하면 자연스레 분야별로 배치되어 자료관리 실무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분류표를 쉽게 익힐 수 있고, 분류기호의 자릿수마다 장르, 지역, 연령, 시대 등의 기준을 한 가지씩 적용할 수 있어 하나의 분류기호로 여러 가지 분류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

25) 허재원, “어린이를 보면 분류가 고민된다,” 어린이와 도서관, Vol.1(2005), p.101. ... 그래서 많은 사서들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자들이 자관에 맞는 분류를 만들거나 한국십진분류를 참고해 책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경숙, “어린이 도서관 분류표 현황과 과제,” 어린이와 도서관, Vol.1(2005), p.126. ... 작은어린이도서관에서는 운영주체, 설립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의 정리, 즉 분류의 문제에 도서관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랑새분류표, 느티나무분류표, 기적의 도서관 등 자체분류법을 만들어 사용하는 곳도 있고 KDC(한국십진분류법)를 사용하는 곳도 있어...

26) 박경숙,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현황과 과제,” 어린이와 도서관, Vol.1(2005), p.127에서 재인용.

27) 2003년 3월에 느티나무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랐던 분류표 및 부가설명을 근거로 전개함.  
<<http://www.neutinamu.org>> [인용 2007. 5. 7].

다. <표 4>는 몇 차례 수정 보완된 분류표로, 분류 번호는 중분류(류, 강)까지만 번호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분류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느티나무 분류표의 체계 및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느티나무 분류표(소분류 이하 생략)

000 참고자료	100 부모님 책	200 인문	300 사회	400 자연의 세계
010 백과사전	120 철학/심리/역사/종교	210 철학/심리학/예절	310 여러 가지 상식	410 수학
020 인문사전/자료집	130 경제/경영/사회/복지	220 종교	320 경제 이야기	420 물리/화학
030 사회사전/화보/지도	140 순수과학	- 기독교/불교/기타	330 사회/복지/교육	430 자연사/과학철학 (주로 청소년)
040 자연도감/사전	150 기술과학	270 말과글	340 정치와 법 이야기	440 우주/천문
050 기술과학도감/사전	160 예술	- 국어/한자/고사성어	370 지리/지도책	450 지구/기상
060 예술사전/자료집	170 교육	280 인물이야기	380 문화	460 동물/식물-도감
070 어학사전	180 문학	290 역사 이야기	390 답사/여행/박물관	470 동물/식물-이야기
080 어린이백과				480 자연동화/그림책
090 잡지				490 자연의 세계 전집
500 생활과 과학	600 예술/취미	700 비도서자료	800 문학	900 그림책
510 우리 몸/성교육	610 예술의 이해	710 도서관 관련자료집	810 시/동시/동요	910 우리작가 그림책
520 환경이야기	620 미술-화가와 작품집	720 비디오	820 만화(대출불가)	920 외국작가 그림책
530 일상속의 과학	630 미술활동	730 CD-Rom	830 창작동화	
540 과학상식/백과	640 음악이야기	740 CD 음반	840 수필	
550 기계문명과 미래	650 음악-악보집	750 카세트 테이프	860 글모음	
560 인터넷/컴퓨터	660 연극/영화/무용	760 슬라이드 필름	880 옛이야기	
570 실험/관찰/탐사	670 운동	770 퍼즐		
580 과학동화/그림책	680 취미	780 DVD		
590 생활과 과학전집	690 놀이/수수께끼			

첫째, KDC의 분류기호를 토대로 어린이도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에서만 몇 개 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형태로 전개하였다.

둘째, 분류주제의 범주를 정할 때 장서량을 고려하여 특정 분류기호에 책이 쏠리지 않고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어린이도서 중 문학류의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여 그림책을 900으로 설정, 일반 글자책과 분리하였다. 또한 KDC의 주류항목 중 장서수가 얼마 되지 않은 100(철학), 200(종교)의 주제들을 700번대의 어학과 900번대의 역사 및 인물 등과 함께 묶어 200(인문)에 대분류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인문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철학, 종교, 어학, 역사 이야기 등의 연관 주제들을 인접시키고 있다.

셋째, 비도서자료(700)와 부모님책(100)에 별도의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있다. 비도서자료와 부모님책은 서가에 별도 배가되는 자료들로 느티나무 분류표처럼 10구분중 하나를 선택해서 분류하는 방법과 별치기호를 사용해 정리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넷째, 어린이가 주이용자인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에 맞춰 분류용어를 변경·사용하고 있다. 400 '자연의 세계'와 500 '생활과 과학'은 각각 '순수과학', '기술과학'이라는 용어대신 어린이들이 이해

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것이며, '인물', '역사', '음악' 등에 이야기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분류 용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고 있다.

다섯째, 전체 도서관 장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학류에 대하여 독자적인 분류기준과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림책을 900번대로 따로 분류하여 양적인 조절을 시도하고 있음은 물론,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거나 직접 책을 골라 본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적합연령을 .13과 .46과 같이 소수점 아래 표시하여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KDC가 소분류(요목)로 장르구분을 하는 것과는 달리 느티나무 분류표에서는 중분류(강목)로 장르를 구분하고, '창작동화', '수필', '옛이야기' 등에서 우리작품과 외국작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책을 선택할 때 창작동화, 옛이야기, 동시 등 장르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우리작품인지 외국작품인지를 가리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시, 동화, 수필, 글모음, 옛이야기와 같이 문학형식에 따라 서가에 배치되도록 한 것이다. 한편, KDC로는 사회과학류(300)의 신화, 전설에 포함될 옛이야기를 문학으로 통합시키고 있으나, 자연동화 및 과학동화는 문학류로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의 주제에 하위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류표는 어린이도서의 특성과 실제적인 분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KDC의 체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KDC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십진체 계상의 특징은 앞서 분류표 개발자가 설명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류표를 형식적이며 기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주제배열상의 비논리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가령, 대표적인 어린이도서 장르인 만화와 그림책의 경우, 만화는 문학의 하위류로 전개하고 있지만, 그림책은 별도의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480(자연동화/그림책)과 580(과학동화/그림책)이 800(문학)이나 900(그림책) 분야와 중복되는 점도 논리적인 구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파랑새도서관 분류표

파랑새도서관 분류표는 서울시에 위치한 파랑새어린이도서관에서 만들어져 순천, 제주, 서귀포, 진해 등 4곳의 기적의 도서관과 몇몇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류표이다. 이 분류표 또한 느티나무 분류표처럼 개별도서관 단위에서 자체 도서관의 사정에 맞게 개발·사용되다가 유사한 성격의 도서관들이 이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재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본적인 체계는 느티나무 분류표와 같이 십진식을 따르고 있으며, KDC의 분류기호를 참고로 하여 일부 주제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전개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는 중분류 항목까지만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 분류항목은 느티나무 분류표의 그것보다 두 배 이상이 많은 총 248개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표의 체계 및 구성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파랑새 분류표(소분류 이하 생략)

000 총류	100 국내문학	200 외국문학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010 백과사전	100 국내문학	200 외국문학	300 사회과학	400 자연과학
020 일반사전	110 창작동화	210 창작동화	310 철학	410 식물
030 박물관	120 고전	220 고전	320 경제	420 동물
040 일반상식	130 시	230 시	330 사회	430 생물과학
050 일반전집	140 어린이글	240 어린이글	340 법	440 천문학
060 정기간행물, 신문	150 수필, 일기, 기행	250 수필, 일기, 기행	350 풍속, 민속	450 수학
090 기타	160 희곡	260 희곡	360 교육	460 정보과학
	190 기타	290 기타	390 기타	470 환경
				490 기타
500 인물, 역사	600 예술	700 학습교재(워크북)	800 만화	900 성인
510 한국인물	610 미술	710 교과학습	810 국내문학	910 철학
520 외국인물	620 서예	720 어학	820 외국문학	920 종교
530 세계인물	630 공작	730 독서	830 사회과학	930 사회과학
540 한국사	640 음악	740 글쓰기	840 자연과학	940 자연과학
550 세계사	650 운동	750 미술, 서예, 공작	850 인물, 역사	950 예술
560 지리	660 놀이	760 음악	860 예술	960 언어
590 기타	690 기타	770 신문 활용	870 학습교재	970 문학
		790 기타	890 기타	980 역사
				990 기타

첫째, KDC의 주제 중 어린이도서관서에서 장서량이 적은 주제는 버리고 상대적으로 장서량이 많은 주제는 분류항목을 분리시켰다. 즉, 100(철학), 200(종교), 500(기술과학), 700(어학)과 같이 장서수가 적은 주제들은 아예 없애버리거나(종교) 다른 대분류의 하위로 재설정(철학은 사회과학에, 기술과학은 자연과학에, 어학은 학습교재에)하는 대신, 문학은 국내문학과 외국문학 2개류(100, 200)로 나누어 전개시키고 있다. 500(인물, 역사)과 700(학습교재)을 대분류로 설정한 것도 장서량을 고려한 배치로 볼 수 있다.

둘째, KDC와 비교하여 문학류에 대한 획기적인 배치 및 전개방식을 들 수 있다. 앞선 느티나무 분류표에서는 글책(문학 800)과 그림책(900)을 별도의 대분류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장르구분을 선행한 후 지역구분을 해주고 있었다(문학 > 창작동화 > 우리동화). 반면 이 분류표에서는 먼저 대분류로 지역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장르별로 전개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국내문학 > 시 > 전래동요), 이것은 우리정서에 맞는 책을 아이들에게 먼저 권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으로<sup>28)</sup> 볼 수 있다. 지역구분을 선행하는 원칙은 500 인물,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별칭기호를 사용하여 글책과 그림책을 구별함으로써 유아들이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띠 라벨을 이용하여 독서수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셋째, 조기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파랑새 분류표에서는 전집류와 비도서자료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문학과 자연과학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제분

28) 허재원, 전개논문, p.108.



야에서 전집류의 출판과 이용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소분류(요목자리) 자리에 분류기호 8을 공통적으로 배정하여, 전집류에 대한 통일된 분류업무를 피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내문학전집(108)’, ‘외국문학전집(208)’, ‘식물전집(418)’, ‘한국인물전집(518)’ 등을 들 수 있다. 비도서자료도 같은 방법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먼저 모든 주류 항목의 하위에 -90(기타)을 설정하고 거기서 원서, 비디오, 슬라이드, CD, 녹음테이프 등 5개의 비도서자료의 종류들을 요목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그밖에 국내문학과 외국문학에서 장르에 대한 증분류 번호를 일치시킨 점, 만화(800)의 하위 항목 전개시에 대분류 번호를 참조하여 지정한 점, 그리고 성인(900)의 하위항목 전개시에 KDC의 대분류 기호의 일부를 참조한 점 등도 조기성을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넷째, 학습교재(700), 만화(800), 900(성인)을 별도의 대분류 항목으로 배정하고 있다. 원래 KDC에서 700은 어학에 해당되지만 어린이 책에서는 어학과 관련해 하나의 대분류로 묶을 만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하위로 배정시키고 어학보다 상위개념에 해당되는 학습교재를 대분류 항목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한 만화를 문학에 포함시켜 분류하지 않고 별도의 류로 분리시켜 문학과 만화를 구분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파랑새도서관 분류표도 몇 가지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400(자연과학)의 하위항목으로 전개되는 식물(410), 동물(420), 생물과학(430)의 경우, 학문적인 체계상 생물과학 > 식물, 동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식물과 동물은 생물과학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으로, 보통 동식물의 복합주제를 다룬 도서는 생물과학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분류표를 이용하면 체계적인 분류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520, 530에 각각 배정된 ‘외국인물’과 ‘세계인물’은 항목간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개발을 위한 제언

#### 가. KDC와 어린이도서관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의 특성과 어린이도서관의 분류표 사용현황, 그리고 여러 어린이도서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개의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도서관 분류표 개발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 자료에 KDC를 사용하였을 때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KDC는 우리나라의 표준분류표로서, 현재 관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앞서 공립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어린이도서관에서도 KDC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도서관의 자료는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다. 우선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서 취급하지 않은 만화, 그림책과 같은 형식의 자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료의 대부분이 동화와 옛이야기 등 문학류에 편중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학문분류를 기반으로 지식의 전 분야를 균형있게 포괄하고 있는 KDC 체계로는 문학류가 지배적인 어린이도서관 자료를 분류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게다가 한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다루기보다는 여러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자료나 과학동화, 철학동화 등과 같이 지식책과 문학책으로 정확하게 범주를 나누기 어려운 자료들이 장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어린이 자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린이도서관에서 KDC를 사용하면서 어려움과 불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규모적인 특성에서도 KDC 사용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KDC는 처음부터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과 같이 대규모 도서관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학교도서관과 같은 소규모 도서관이나 특정 이용자층을 보유한 특수도서관을 염두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sup>29)</sup> 단지 「韓國十進分類法解説」에서 도서관의 성격, 장서량, 장서구성 특성에 따른 적용범위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 소규모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에 대규모 장서의 폭넓은 주제 범위를 대상으로 개발된 KDC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분류체계 운영상에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도서관에서 현재 KDC를 사용하거나,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KDC를 사용함으로써 분류작업상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용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어린이도서관을 위한 별도의 분류표를 개발·사용하게 되면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의 분류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어린이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이 자료를 어린이도서관 분류체계로 분류하고 일반자료는 기존의 분류체계로 분류하게 되면 한 도서관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분류체계를 갖게 되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를 일괄로 적용할 수 없는 학교도서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라고 하면 초등학교도서관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중등 및 고등학교 도서관의 분류체계가 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서의 통합관리나 자료검색에 어려움이 생기고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혼란을 가져온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분류된 자료를 몸으로 익혀서 학문의 체계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평생의 도서관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원화된 분류현실 상황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 나. 분류표 개발에 필요한 기본사항

어린이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어린이도서관의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어린이도서관의 자료 분류를 위해 논의되거나 적용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sup>30)</sup> 첫째는, 기본 분류표를 변용하거나 간략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둘

29) 韓國圖書館協會, 改訂第4版韓國十進分類法解説(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7), p.160.

째는 기존 분류표를 사용하면서 특정 어린이 자료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호를 배정하여 구분하는 것이고, 셋째는 별도의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를 고안하는 것이다. 이중 처음 두 가지 방법은 기본적으로 KDC의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용을 가한 것으로, KDC의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KDC 사용으로 인한 많은 장점들을 고려한 것은 물론, 자체 분류표 개발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특정도서관의 사정에 맞게 개발된 몇몇 전문 분류표들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분류체계 선택에 있어 이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실제 어린이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많은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관련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자료의 분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여러 어린이도서관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성격의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을 제안하도록 한다.

첫째,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KDC로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린이 문학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분류체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기존의 어린이도서관 분류표들에서는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어린이 문학의 절대적인 비중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문학(800)과 그림책(900) 그리고 국내문학(100)과 외국문학(200)으로 분리 배정하고 있었다. 한편, 유럽권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번역되어 간행되는 출판현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일본이외의 기타 언어권의 자료에 대한 문학장르도 보다 세분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과학동화, 철학동화와 같은 주제별 지식동화에 대해서도 항목을 설정하거나 명확한 구분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분류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 문학과 함께 그림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림책은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출판되는 도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크기나 형태도 다양하여 배가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책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느티나무 분류표와 같이 독립 항목(900)으로 배정·전개하는 방법과 기존의 분류기호를 그대로 부여하여 다른 도서들과 함께 배가하거나 파랑새 분류표와 같이 기존 분류기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별치기호를 부여하여 별치 배가하기도 한다. 별치 배가는 유아들이 직접 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림책만을 편독하게 되어 일반도서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 수도 있다. 반면, 그림책을 일반도서와 함께 배가하면 다양한 크기로 인해 배가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에게 교양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인 만화의 경우, 파랑새 분류표와 같이 별도의 대분류(800) 항목을 배정하여 전개시킬 만큼 어린이 자료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학·역사와 같은 어렵고 딱딱한 주제와 내용들은 만화 형식의 자료들이

30) 김종성, “어린이도서관, ‘실제적 필요’에 맞는 분류를 고민한다,” 어린이와 도서관, Vol.1(2005), p.155.

상당하므로, 분류항목을 선정하고 전개하는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접근 및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분류표가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의 주 이용자는 어린이와 부모들로, 이들이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서가에서 직접 책을 고르는 직접접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가를 브라우징하면서 무작위로 책을 고르는 행태를 보이며, 그러한 습성을 통해 체득된 분류체계는 평생동안 사용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분류표를 개발할 때 KDC나 전체 학문적 체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접근 행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장서비중이 높은 어린이 문학에 대하여 적절한 학년이나 연령을 분류기호나 여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시해 줄 것인가이다. 이 방법은 어린이 스스로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쉽게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분류표에서는 직접 분류기호로 표시하거나(느티나무 분류표), 띠라벨을 이용(파랑새 분류표)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직접접근의 행태가 주를 이루는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셋째,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이지만 성인자료(부모님책)나 비도서자료에 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자료실과 성인 자료실이 함께 설치·운영되므로, 이들 자료에 대한 분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분류항목을 배정하던지, 아니면 별치기호를 사용할 것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넷째, 현재 KDC에서 사용되는 분류용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쉽고 적합한 용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용 표준분류체계가 없어 도서관 실무자와 이용자 모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향후 전용 분류표 개발시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사항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한 조사한 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공립 20여관을 비롯하여 기적의도서관 9관, 인포어린이도서관 14개관, 그리고 사립어린이도서관(사립문고 포함) 120여개관 등이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통계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의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관종별로는 개인이나 교회 및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들이 보다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어린이도서관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류표의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대다수 공립도서관과

인표어린이도서관에서는 KDC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표준분류표로서의 입지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기적의 도서관과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는 KDC이외에도 파랑새 분류표, 느티나무 분류표와 같이 어린이와 어린이도서를 중심으로 새로 개발한 분류표와 정리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느티나무 분류표와 파랑새 분류표의 특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어린이 문학, 그림책, 만화책 등 어린이 도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KDC로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린이 문학은 전체 장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장서량이 고려되어야 하며, 여러 나라의 문학작품이 번역 출판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문학장르에 대한 세분전개도 필요하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상 자료 이용이 많은 그림책과 만화책에 대해서도 분류항목을 선정하거나 배가하는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접근 및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분류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와 부모들은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기호를 확인하고 서가에 접근하는 간접접근이 아니라 서가에서 바로 책을 고르는 직접접근 행태를 보인다. 또한, 계속적인 접근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류체계를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분류지식은 평생동안 활용된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도 여타 도서관 분류표나 학문적 체계와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면서 개발·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자료(부모님책)나 비도서자료에 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자료실과 성인 자료실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다르므로 이들 자료들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는 쉽고 적당한 분류용어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KDC의 분류용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한자가 많아 어린이도서관 분류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본사항을 참고로 하여 향후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가 개발된다면, 어린이도서관 현장에서 분류문제로 발생되는 혼란을 크게 줄일 수도 있으며, 도서관마다 각자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발된 분류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분류체계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합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연구가 어린이도서관 전용 분류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분류표 개발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